

국제포교로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어느덧 150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포교만큼이나 국내 외국인 포교활동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시기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언어소통능력과 불교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포교사들의 몫이다.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는 6월 16일 부산 흥법사 경내에서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주최했다. 참여 외국인들과 국제포교사회 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들과 친구가 되었다. 또 흥미로운 문화체험을 하게 돼 행복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이 모임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이두석 회장은 "고향을 떠나보면 누구나 힘들고 외롭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는 2010년 1월 창립하여 현재 40명의 국제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가능해야 하기에 회원수에 비해 봉사의 범위와 불교계의 요청이 쇄도해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매월 정기행사인 흥법사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문화알리기 행사를 비롯, 외국인 템플스테이, 어린이 영어법회, 불교영어법회, 부산연등축제와 팔관회 등 각종 외국인 초청 행사에 통·번역 및 안내,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사찰 안내판 번역, 국제포교사 양성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두석 회장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시대에 부응하는 많은 국제포교사들의 양성이 간절한 시기"라며 "뜻 있는 분들의 참여와 도전과 발심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전통문화 체험 등 행사 다채

외국어 가능 '봉사 요청 쇄도'

듯이 말조차 통하지 않는 먼 이국에서의 생활은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내민 손은 어쩔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보다 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벗과 교류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전통문화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항상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대법회 성공기원 백일기도 입재

6월 25일 통도사 설법전서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법회의 성공기원을 위한 백일기도입재식이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6월 25일 한국전쟁기념일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 한반도평화대법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지원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첫째, 전쟁의 공포를 불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둘째,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장병들 추모, 셋째, 세계빈곤 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법회의의 성공기원을 위한 백일기도입재식이 6월 2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대외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 국문을 통일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앞장서고"고 강조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헌다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봉행사, 기조연설, 대화사, 기원문 낭독, 통일발원문,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달구벌 관동놀이 시민들 '만족'

대불총 평가회 · 결산



대불총 평가회

대구불교총연합회(이하 대불총)는 6월 21일 만촌동 인터블로그 호텔에서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동놀이 평가회'를 갖고 행사를 결산했다. 이 자리에는 각 종단 대표자 소인 스님과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동놀이' 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총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만 13세 이상 관람객 593명을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조사한 행사 종합 만족도는 72.6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조계종 수계법회...석불사서

총신도회장 보현행 임명



원조계종 수계법회

대한불교 원조계종 총무원(총정 일선 중앙)은 경남 고성읍 석불사(주지 정흠)에서 6월 27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갈마 아사리 법철 스님, 교수 아사리 일공 스님, 정례 대화상 자강 스님, 유나 정수 스님, 인례 명승, 범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신도회장으로는 대구 동구에 보현사(주지 보광스님, 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보현행(신명순)보살이 임명됐다.

법철 스님은 "전통수계회와 함께 받은 사미 십계명을 평생 스승으로 받들고 인생을 살면서 수행정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에서 지나친 노출은?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적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주된 원인이 된다.

여름이 되면 산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락공간으로 변한다. 사찰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신앙활동을 위해 사찰에 온 불자들에게는 휴가를 목적으로 사찰 주변의 자연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된다. 행락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사찰의 주차장,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사찰 주변의 산과 계곡, 유충으

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은 여름철 사찰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찰주변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찰구경은 중요한 문화향유에 해당된다. 이들은 흥분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찰을 찾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여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이다.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에 소매가 없는 셔츠를 입은 것도 모자라 슬리퍼를 질질 끌고 일주문을 들어선다. 사찰이 엄연히 스님들과 불자들의 수행환경이고 성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사찰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 눈에는 사찰이 또 하나의

행락공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은 반바지나 짧은 치마같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사람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태국의 에메랄드사원이나 미얀마의 슈다곤과도다 역시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을 사람들에게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 법, 승삼보를 모신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왜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사찰을 찾게 될 경우 사찰이 함양하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훼손되며,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는 커다란 실례가 된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문화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한없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부디 이번 여름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많은 이들의 수행공간인 산사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과도한 노출은 수행환경에 해가 된다. 특히 참배객들이 노출 심한 옷차림으로 사찰을 찾게 될 경우 수행자들에게 큰 무례를 범하게 된다. 서울시 자사찰의 참배객 모습

(주)에스큐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투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